

공원일몰제에 대응, 도시 녹지공간 지키기 위한 노력

부산시 도시계획과
2020. 10. 21.

인천시 공원조성과
2020. 11. 19.



부산 이기대공원 위치도

출처: 부산시. (2020). 난개발,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부터 부산시민의 미래 자산을 지킨다! 10월 21일 보도자료.

부산시, 이기대공원 보전 위해 용도지역 변경 결정

부산시는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난개발에 노출된 이기대공원의 용도지역을 현행 ‘자연녹지지역’*에서 ‘보전녹지지역’**으로 전면 변경하는 ‘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’을 10월 고시한다고 밝혔다. 앞서 7월 1일 공원일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이기대공원도 전체 면적 약 200만㎡ 중 정상부가 속한 약 75만㎡가 실효되어, 공원 일대 사유지 등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.

시는 이기대공원이 시민의 쉼터이자 생태·지질학의 보고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판단 아래, 지역 전체(약 190만㎡)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전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. 시는 6월부터 관련 기관 협의, 주민 열람공고,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는 등 용도변경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였다.

인천시, 장미미집행공원에 특화 공원 조성 추진

인천시가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도록 미조성 상태로 있던 48개 공원을 ‘내 집 앞 푸른 공원’으로 조성한다. 2019년부터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장미미집행공원 실효방지 사업은 지역 내 장미미집행공원인 무주골공원을 포함한 48개 공원(6.18km²) 중 국공유지 9곳을 제외한 39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1,956억 원을 포함하여 총 7,597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는 사업이다.

시는 각 공원이 획일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 및 공간 특화를 통해 다양성을 더한다는 계획이다. 1944년 처음 공원으로 결정된 후 방치되어 온 지역의 대표적 장미미집행공원인 무주골공원은 민간에서 총 477억 원을 투입하여 장미 100만 송이를 주제로 특성화하는 공원으로 재탄생한다.

*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, 도시 확산의 방지,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고,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

** 도시의 자연환경·경관·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